

“민족 대통합 염원 乾坤坎離로 펼쳐내”

권곤감리

김영옥 '아리랑 숨결'展

“세상은 온갖 문제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이수라장을 만들고 있고. 대통합을 의미하는 아리랑을 통해 세상의 화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모두를 담아 하나되는 상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죠”

김영옥 작가(만다라 미술심리연구원)의 '아리랑의 숨결'展이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에서 열린다. '건·곤·감·리로 몸과 마음 치유로 다가오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통합과 화합의 세계를 표현했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우주의 원리와 연기법 등을 민족적 정서로 표현했다. 겨울(건乾)-빛을 뿜어내는 영원한 우주 공간의 중심-봄(곤坤),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여름(감坎),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가 왕성한 세상-가을(리離)아름다운 치유되어 결실을 맺는 세상 등을 표현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 속에 이미 배어있는 가락이자 유희입니다. 이런

아리랑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 활기, 생동, 신명, 합창, 변화 등의 주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의 정서와 역사를 하나로 묶는 아리랑을 화폭에 그려냈죠”

이번 대통합을 향한 작가의 바람은 통일과 영원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그의 작품 '감'은 쾌를 나누어 작업하고 다시 하나로 있는 작업을 통해 통

민족의 역사와 개인 내면에 착안

현대인들의 상처와 고통 어루만져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서

일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민족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통일입니다. 작은 생각부터 통일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젓줄을 다시 잇는 꿈을 실어 작업에 임했죠”

김 씨는 지금까지 '만다라 새김전' - '인드라마의 빛' - '송례의 문' - '봄음의 화두'



김영옥 작가의 '아리랑 숨결'전이 9월 25일까지 갤러리 통큰에서 펼쳐진다. 그림은 여름을 표현한 '감'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등을 통해 내면세계의 지도 그리기를 해왔다. 이런 일련의 주제를 통해 물질의 세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 치유를 시도해 온 것이다. “제 작품이 의식에서 무의식 세계로 파

고 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보는 이들은 물질의 세계를 잊고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한제국 영사관 환수는 국민의 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나는 땀뚱이여” 102년 만에 미국 워싱턴 소재 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 이사장(사진)은 8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첫 마디를 던졌다.

김 이사장은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뉘뚱(땀)이 번다’는 우리 말에 빗대어 겸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자리에 앉자 공사관 매입은 정부와, 정지권, 또 국민 개 개인의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월 21일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910년 일제가 강제 매각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했다. 백악관에서 차로 북동쪽 방향 10분 거리에 있는 로간서를 역사지구(Logan Circle Historic District)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이다.

1891년 11월 조선왕실이 2만 5000달러의 거금으로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사용한 이 건물은 1882년 열강들의 압박에 맞서 대한제국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등 자주외교를 펼친 상징이기도 하다.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공사관은 그로인해 모진 풍파를 겪었다. 일제는 이 건물을 1910년 6월 을사늑약을 2개월



앞두고 단돈 5달러에 강압적으로 뺏는다. 이후 일제는 공사관을 10달 만에 재매각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공사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재미교포사회나 정부에서도 매입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사회의 여론을 모으고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고리에는 3200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신탁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향후 공사관을 한국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연내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국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장도 마련된다.

“한국전통과 한류 등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한민족의 기상을 알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활동도 힘 닿는 데 까지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x@hyunbul.com

“인간 굴레와 고통 한국적 정서로 승화”

김복희 교수의 무용 '다시 새를...'

불자 무용가인 김복희 교수(한양대 예술학부)가 9월 7일~8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서 현대무용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엔 김 교수는 안무는 물론 직접 무대에 올라 춤을 선보여 다시한번 그의 열정을 펼쳐 보인다.

“항상 무대에 오르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정도 공연에 오르는데 항상 이날을 위해 연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은 모던한 분위기로 연출됐지만 결국은 상처의 치유 그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과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김 교수는 이번 작품의 모티브를 199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모리슨의 소설 <제>에서 얻었으며 이를 한국적 정서로 풀어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머니에게서 버림 받은 한 5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애육에 관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펼쳐진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시대를 살든 결국 인간은 인간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마치 선로 위를 달리는 한 열차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차별과 아픔이 그들의 것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한국인의 아



김복희 교수가 연출하고 출연하는 무용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

품이고 경험합니다. 이를 작품으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김 교수는 심우도 원효대사 등 불교적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효봉 스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등과 인연이 깊었고 늘 불교는 내 삶과 작품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다. 이번 작품 역시 인간의 탐욕과 갈등의 관계를 파헤치고 그 상처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불교의 자비 정신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현재 김복희 교수는 한양대 예술학부 학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작품으로는 ‘법열의 시’ ‘요석’ ‘신라의 외출’ ‘石女’ 등이 있다. 공연 시간은 7일 금요일 저녁 8시, 8일 토요일 오후 5시다. (02)440-0500 정혜숙 기자

‘국민 첫사랑’ 수지도 반한 템플스테이

KBS ‘청춘불패2’ 템플스테이편 1일 방영

대부도 쌍계사에서 촬영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인기 물이 증인 미쓰에이의 수지가 맞팔 나는 사찰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9월 1일 방송된 KBS 2TV ‘청춘불패2’에서는 바쁜 스케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떠난 템플스테이 여행을 통해 ‘폭식돌’, ‘국민 첫사랑’ 등 대세 아이돌로 불리는 수지의 다양한 매력에 공개했다.

대부도 쌍계사에서 진행된 촬영장은 수지, 개그우먼 김신영, 그리고 게스트로 출연한 비스트의 윤준형, 장현승 등 멤버들이 출연했다. 방송에는 사찰음식 만들기, 명상, 참선, 힐링체조 등 질 체험을 하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가깝없이 포착됐다.

대안스님이 차려낸 사찰음식을 맛본 멤버들은 밖에서 먹는 음식과는 다른 건강한 맛에 “맛있다”를 연호하며 음식이 담긴 그릇을 싹삭 비우는 등 왕성한 식탐을 보였다. 특히 대세돌 수지는 촬영 도중에도 스님에게 사찰음식의 레시피를 꼼꼼히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참선 촬영에서는 난생 처음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것



‘청춘불패2’에 출연한 수지와 대안스님

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지만 이내 깊은 명상에 빠져들며 바쁜 일정 속에 소홀했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힐링체조를 가르쳐 주는 스님에게 즉석에서 ‘침묵의 007’ 게임을 제안한 멤버들은 아이돌다운 유쾌한 모습과 패기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도 했다. 게임 벌칙으로 멤버 전원이 돌아가며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진경영이 연출돼 재미를 선사했다.

대안스님은 “바쁜 스케줄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잠깐의 시간이나마 진정한 휴식을 선사하고 싶다”며 손수 준비한 음식과 차를 대접하는 정성을 보였다. 스님은 “이 곳에서 배운 힐링의 시간을 마음에 새겨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나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민과 함께 문화의 장 펼쳐

백락사...환경설치미술전

백락사와 강원환경설치미술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12강원환경설치미술초대작가전’이 9월 22일까지 백락사 경내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환경설치미술초대작가전은 물론 기념음악회, 천등제, 미술사생대회 등도 더불어 개최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한다.

전시는 강원도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작품을 설치, 흥천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백락사는 “마을 주민과 함께 미술품을 제작해 지역의 정서를 작품에 반영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고자 했다. 대중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느 미술전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광흥사 가을 음악회...8일

찬불가 국악 공연 등 펼쳐져

경북 안동 광흥사(주지 범종)가 9월 8일 2012년 가을음악회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재즈 찬불가 가요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선보여 깊어가는 가을밤을 장식할 예정이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광흥사는 세종대왕부터 영조 대왕까지 왕실 원찰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사찰

이다. 500년 넘는 은해나무를 배경으로 가을의 소리를 펼쳐보이고자 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성대한 음악회를 여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공연은 >법문 '법성과 함께하는 부처님 소리' >재즈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앙상블' >바우슬 김진호 혼민점음 퍼포먼스 >찬불가 >도살풀이>회심곡, 장타령 >산소리, 국악 등 으로 구성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라”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산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축열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어떤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머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머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직권강매, 오십전조개, 오주배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전,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뒤통)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뒤통) 6cm]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